

KIPEC BRIEFS

미국의회 주요동향



목차

1. 의회 일정 및 소식	2
2.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3
3. 한국, 미국과의 무역 합의 체결 (CSIS 리포트 요지)	4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음영 표시 : 의회 회의

□ 7월 의회 주요 소식

2025 힐 네이션 서밋 하이라이트

2025년 7월 16일, 미국 워싱턴 D.C. 윌러드 호텔에서 제 1회 힐 네이션 서밋(Hill Nation Summit)이 개최되었다. 본 서밋에는 양당을 대표하는 주요 정치 인사들과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연방준비제도(Fed)의 리더십, 민주당의 재편 방향, 최근 입법 성과, 외교 및 안보 정책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1. 연방준비제도(Fed) 리더십 관련 발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은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역대 최악의 연준 의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간 파월 의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온 흐름과 일치하며, 백악관이 연준 수장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2. 민주당 내 전략 방향에 대한 의견 대립

민주당 참석자들은 당의 향후 전략과 쇄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데이비드 호그(25세, 활동가): 급진적 개혁과 세대교체를 통해 당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
- 글렌 아이비 하원의원(메릴랜드): 연령보다 정책 비전과 유권자와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당의 구조적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

이러한 입장 차이는 향후 민주당의 전략 수립과 내부 세력 재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의 정치 복귀 가능성

2025년 1월 하원의장에서 물러나 의회를 떠난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전 의원은 현재 활발한 연설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서밋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기적 교류를 인정하며 향후 정치적 역할 수행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 매카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성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는 정부 밖에서 활동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 국토안보부의 정책 방향 및 공항 보안 개혁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토안보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이민 단속 강화와 공항 보안 간소화를 제시하였다.

- 이민 정책: “알려진 범죄자”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단속을 강조하며, 무차별적 추방보다는 정보 기반 표적 집행 전략을 시사.
- 공항 보안: 교통안전청(TSA)과 협력하여 검색 시스템 간소화 및 기내 액체 반입 허용 기준 완화를 검토 중임을 밝혔다. 현재 미국 국내선 항공기에서는 3.4온스(약 100ml) 미만의 액체류만 반입 가능하나, 향후 기술 기반 보안 강화와 병행해 제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여행객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법률(안)	심의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법 (GENIUS Act) (S.1582)	공포 (2025. 7. 18)	Bill Hagerty (공-테네시) (2025. 5. 1)	고정된 가치로 상환 가능한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감독을 위한 포괄적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연방 또는 주 규제 아래 운영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법정 화폐나 유동성 자산에 1:1로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이 적은 디지털 화폐로, 주로 결제 및 송금 수단으로 활용됨.
2025년 예산삭감법안 (H.R.4)	상하원통과 (2025. 7. 18)	Steve Scalise (공-루이지애나) (2025. 6. 6)	국무부, USAID, 공영방송공사 등에 배정된 미집행 예산 약 94억 달러를 삭감하는 법안으로, 주요 대상은 국제기구 분담금, 평화유지 활동, 글로벌 보건, 난민 및 이주 지원, 경제 지원, 청정기술 기금, 개발 원조, 재난 지원, 독립기관 운영비 및 공영방송 예산 등 임.
미국 수출 통제 투명성 개선법안 (H.R.1316)	상하원통과 (2025. 7. 23)	Ronny Jackson (공-텍사스) (2025. 2. 13)	미국 수출통제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매년 수출 라이선스 발급 및 집행 현황을 의회에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여, 특히 무기 금수국가 및 고위험 기관에 대한 수출통제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026 국방수권법 (H.R.4016)	하원통과 (2025. 7. 23)	Ken Calvert (공-캘리포니아) (2025. 6. 16)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부의 군사 인력과 주요 군사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승인 법안으로, 군인 급여와 수당, 작전 및 유지비, 무기 구매, 연구개발, 방위 건강 프로그램 등 핵심 국방 분야에 자금을 배정하며, 육군·해군·공군·해병대·우주군을 비롯한 예비군과 방위군 인력의 복무 비용 및 관련 기관의 운영 예산도 포함.
한국인 고속권 전문직 비자 신설 법안 (Partner with Korea Act)	발의	Young Kim (공-캘리포니아) (2025.7.23)	한미 경제 협력 및 인재 교류 강화를 위해, 고속권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15,000건의 E-4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

한국, 미국과의 무역 합의 체결

2025년 7월 30일(현지시각), 한국과 미국은 몇 달간 이어진 긴박한 협상 끝에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8월 1일 시한 전에 미국으로부터 25%의 트럼프식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국이자 두 번 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양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각자의 성과를 주장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미국 측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번 합의의 세부 내용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유사한 합의들과 마찬가지로 초기 합의 발표 이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질문 1. 이번 합의는 미국과 한국에 좋은 합의인가?

원칙적으로, 군사 동맹국 간의 관세 전쟁을 피한 어떤 형태의 합의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한미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일본 및 EU와 맺은 무역 합의와 유사한 구조를 따른다.

한국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는 8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 조치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동차와 트럭이 한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이미 대부분의 제조업 제품에 대한 한국 측 관세가 한미 FTA를 통해 '제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미국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비관세 장벽(예를 들어 한국의 차량 안전 기준이 미국산 차량에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반도체 및 제약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한국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나쁜 대우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일본과 유사한 조건

이 적용될 것이며 EU와 동일하게 15% 관세 상한선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알루미늄, 철강, 구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된다. 이 역시 일본과 동일한 조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세부 내용은 부족하다. 핵심 쟁점은 쌀과 쇠고기이며, 특히 미국이 요구해온 '30개월 이상 된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한 수입 규제 해제를 한국이 수용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산업 및 대통령이 지정한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와 함께,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또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해당 LNG 구매가 새로운 주문인지 혹은 기존 중동 물량을 대체하는 것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이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질문 2.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향후 과제는 이번 합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에 공식 초청했으며, 양국 정상회담은 향후 2주 내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축하의 장이 아니라, 양국 간 관료 조직이 합의된 조치를 실제로 실행하도록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을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양보(투자 확대, 비관세 장벽 해소, 환율 조작 방지 조치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무역 이외의 이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역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은 한국이 부담하는 약 1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증액하길 원하고 있다.

질문 3. 더 나은 합의가 가능했는가?

이론적으로는 항상 더 나은 합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협상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협상력을 스스로 제한하였다. EU와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자국의 관세를 인상한 후,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해 재조정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반면 한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산 제품에 대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관세를 유지한 채 협상에 임했고, 이는 결코 강한 협상 포지션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미 안보 동맹에서의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런 전략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보고서는 2025년 7월 31일 CSIS에서 빅터 차(Victor Cha)와 앤디 림(Andy Lim)이 작성한 *South Korea Gets Its Trade Deal with the United States*를 한국어로 번역, 요약한 내용입니다.

발행일 2025년 8월 4일	발행처 한미의회교류센터
『KIPEC BRIEFS』는 한미의회교류센터가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발행하는 미국 의회 입법 및 현지 소식입니다.	